

동양메이저, 스펀본드 의령공장 준공

한일합섬 공장 인수해 재가동 ... 기저귀·포장 비료 산업용 수요 기대

동양메이저가 구 한일합섬의 섬유공장을 스펀본드 공장으로 전환해 가동한다.

동양메이저는 6월10일 박철원 대표이사와 본사 임직원, 협력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펀본드 의령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의령공장은 구 한일합섬이 운영하다 폐업한 것을 2007년 동양메이저가 인수해 그동안 가동준비를 진행해왔다.

부지면적은 총 6만7287.3㎡, 건축면적은 2만8690㎡로 의령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펀본드는 기존의 종이, 필름, 직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재로 알려졌다.

스펀본드는 일회용 기저귀에서 포장용, 가구용, 의류, 산업, 의료, 농업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돼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동양메이저는 1957년 동양시멘트로 출발한 이후 섬유와 건축자재, 건설사업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2000년 동양시멘트, 동양메이저로 사명을 변경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0>